

알파(Alpha)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중단적 변화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하문선(河文善)**

하요상(河耀相)***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중 알파 청소년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한 후 이들 집단의 정서행동적 문제의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남녀 집단별 변화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우선 학업성적, 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자기 신뢰성을 기준으로 알파성격 집단을 선정한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총 217명(9.2%)이 해당되었으며 특히 남학생이 94명(4.2%), 여학생이 123명(5.4%)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파성격 청소년의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장혼합모형(GMM)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은 4개의 잠재집단 유형으로, 신체화는 5개, 사회적 위축은 5개, 우울은 4개의 잠재집단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각각 고위험 유형, 중위험 유형(신체화, 사회적 위축의 경우에만 해당), 위험 유형, 저수준 유형, 급감소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특히 전체 알파성격 청소년의 약 50%이상이 정서행동문제에서 위험군임을 나타내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의 각 유형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알파 성격적 특성이 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정서행동적 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녀 알파성격 청소년 집단의 정서행동적 특성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알파, 성격, 정서행동,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 본 연구는 '2016 제 6회 한국어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재분석 및 수정 보완하였음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조교수

I. 서론

최근 교육현장에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며 자신감도 넘치는’ 여학생이 늘면서 그들이 집단의 리더가 되고 있는 등 여성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학생 집단은 높은 학업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을 나타내었고, 남학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도 뚜렷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봉주, 2009; Ward, DiPaolo, & Popson, 2009).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6)는 201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6%, 남학생은 67.3%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수학성취도 평균이 남학생은 197.48점, 여학생은 200.46점이며 과학성취도 평균은 남학생이 196.51점, 여학생이 199.65점으로,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분석한 Pew Research Center(2014)는 2012년 여자 고등학생의 71%, 남자 고등학생의 61%가 대학에 진학하여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2012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분석 결과에서는 싱가포르나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경우 남학생이 우위인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의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교육현장에서 두드러진 여학생들의 활약은 우수한 여성의 특성에 대한 관심과 엘리트 여성 집단을 의미하는 ‘알파 걸’(alpha girl; Kindlon, 2006) 대한 연구를 증가시켰다.

초기 알파(alpha; 이하 알파) 성격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지배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리더십을 가진 남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알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Hawley, Little, & Card, 2008; Ludeman & Erlandson, 2006). 그러나 최근 변화되고 있는 여성의 성격 특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알파성격의 발전을 주도해왔다(Ward, DiPaolo, & Popson, 2009). 특히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유형의 리더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파성격 즉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외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격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연구자들은 현대 세대들에게서 이러한 알파성격과 관련된 행동과 신념들이 더 증가되었으며(Twenge, 2001; Twenge & Campbell, 2001) 알파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Kindlon, 2006; Ludeman & Erlandson, 2006).

특히 알파걸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엘리트 여성 집단의 심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활발해졌다. Kindlon(2006)은 고등학교 소녀들에 대한 연구에서 알파성격의 소녀들은 공부나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재능 있고 욕심이 많으며 높은 자부심과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최고를 의미하는 그리스 문자 ‘알파(α)’를

부여하여 이들을 '알파걸(alpha girl)'로 명명하였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도 이 엘리트 여성 집단에 대해 Super girl(Snapp, 2010), Alpha female(Ward, DiPaolo, & Popson, 2009)로 명명하였으며, 알파성격의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여 높은 리더십과 우월감을 느끼고, 높은 자존감과 정서 지능 및 남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Ward, Popson, & DiPaolo, 2010). 또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들 알파 여성 집단은 높은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확신이 뚜렷하고 목표지향적이며, 평등주의 신념을 가지고 남성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우등생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Kindlon, 2006; Luderman & Erlandson, 2006; Snapp, 2010; Ward, DiPaolo, & Popson, 2009).

알파걸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양명희와 이경아(2009)는 우리나라 여학생 집단의 7.8%가 알파걸로 분류되며 이들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습에 대한 도구적 동기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가 높으며,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진 건강한 학업정서를 지닌 집단이라고 보았다. 최윤진과 임현정(2010)은 우리나라 여학생 중 15%가 알파걸 집단에 속하며 이들 알파걸은 진로성숙도가 높고 개방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비전통적 영역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하며 전문직을 희망하는 집단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알파걸 집단은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오혜진, 20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알파성격 집단이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가 높은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한 집단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설명하는 심리정서적 건강성의 개념은 협소하며 일반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들은 이들 집단에 대해 학업적 혹은 진로관련 심리적 특성을 주로 파악하였고 외적 가치(e.g., 성취, 성공, 지위)를 기준으로 알파성격 집단의 심리적 변화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개인 내적 특성 또는 심리정서적 특성(e.g., 우울, 스트레스, 행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알파성격을 가진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이들이 모두 높은 학업 성취를 나타내에도 불구하고 문제 대처 기술에 있어서 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유능감(self-competence), 높은 스트레스, 섭식장애 등을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친밀감, 상호작용 부족 등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Snapp, 2010).

한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자료에 의존하여(e.g., Ward, DiPaolo, & Popson, 2009) 청소년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발달단계에서 어떠한 적응적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ndlon(2006) 등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서구에서 정의된 청소년의 알파성격이 한국의 사회문화 속에서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남녀 청소년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적인 특성으로 여겨진 알파성격이 과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적인지 그 변화 유

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즉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의 측면에서 어떠한 종단적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남녀 청소년별로 변화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알파성격의 개념 및 특성

최근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매체에서는 종종 알파남성, 알파여성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원래 알파남성(alphah male)이라는 용어는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문헌에서 기원된 말로, 한 무리의 동물들 중 리더를 일컫는 말이었다(Davies, 1985). 소수의 논문만이 알파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다루고 있는데, Ludeman과 Erlandson(2006)은 알파남성은 지배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성향 또한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파남성을 단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한 바 있다(Little & Card, 2008).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공격성과 지배성은 알파남성만의 특징이 아니라 알파남성과 알파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성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Hawley, Little, & Card, 2008).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알파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 중 특히 Kindlon(2006)의 연구는 알파성격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Kindlon은 2006년 출간한 그의 저서 '새로운 여자의 탄생-알파걸'에서 '알파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공부와 운동, 인간관계와 리더십 등 모든 방면에서 어떤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며 높은 자신감과 성취욕을 가진 여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1등 또는 최고를 의미하기 위해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 '알파(α)'를 사용하여 알파걸로 명명한 것이다. 이 알파걸들은 과거에 극심한 남녀차별을 경험한 이전 세대와는 달리, 계속되는 여성운동의 결실로 나타난 여권상승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로 저돌적인 도전정신과 자신감, 넘치는 끼와 욕심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남녀차별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남녀차별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남학생보다 부족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훨씬 뛰어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알파걸들은 Kindlon(2006)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은 남성을 적대적으로 보는 여권주의자들이 아니며 그저 평등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다.

Kindlon(2006)이 제시한 알파걸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

고 있다. 알파결은 힐러리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강력한 여성 롤모델이 주변에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영향으로 긍정적 자아관과 세계관, 자신감 등을 갖게 된다. 둘째, 그들은 신세대 아버지들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 신세대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컴퓨터나 운동, 캠핑 등을 함께 하며 남성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고 독립심, 리더십, 도전정신 등의 남성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켜 자녀들이 그러한 특성을 삶에 적용해가며 높은 자부심과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알파결은 좀 더 합리적인 경향이 있다. 이들은 깊은 사고, 자기조절 능력과 자제력 등이 높은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알파결은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높은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성취동기가 강하다. 다섯째, 그들은 독립성과 관계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내는 남성적인 독립심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계 맺는 능력이 뛰어나 여성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파결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주장할 줄 아는 자기주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알파결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건강한 정서와 높은 자부심, 강한 성취동기, 독립심과 관계지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학업, 운동, 인간관계, 리더십 등에서 탁월한 성취를 나타내는 여학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파결이 나타내는 특성을 알파성격이라고 명명하였고, Kindlon(2006)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파성격 집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신뢰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그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2. 청소년 알파성격과 정서행동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파성격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들은 알파성격을 지닌 청소년들이 문제 대처 기술에 있어서 덜 긍정적이며 낮은 자기유능감(self-competence)과 높은 스트레스 혹은 낮은 친밀감과 상호작용문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napp, 2010). 또한 이들은 공격성 수준이 높으며(Hawley, Little, & Card, 2008),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등(매일경제, 2007)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알파성격 청소년들의 정서행동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즉 학업성적, 리더십,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자기 신뢰의 측면들이 정서행동적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학업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들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면 정서장애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자살과 같은 병리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박춘성, 원경림, 2009). 학업에 대한 지나

친 몰두나 집착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방해하여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김혜자, 2006; 신현심, 2005). 특히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게 되는데(이혜경, 2002) 이러한 스트레스가 학교 부적응, 정신건강문제, 우울, 자살충동,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인성, 2004; 이정화, 손원경, 2005).

다음으로, Linden과 Fertman(1998)은 청소년기를 리더십 개발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으며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건강하게 개발해 나갈 때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위험행동을 예방하며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더십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교우관계가 원만하였으며 교사들과의 관계도 친밀하다(반기완, 2009).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적응유연적인 태도로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한다고 보고되었다(Hollin, 1986; Werner, 1990). 한편, Brown(2007)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학교 외 활동 즉 과외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균형과 안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과외활동의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양한 덕목들을 습득하도록 돕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과외활동 참여가 사회적 위축과 다양한 내재화 증상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이지혜, 정진선, 이수진, 2014;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5; Bohnert, Kane & Gaber, 2008).

성취욕구란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McClelland, 1953), 이러한 성취욕구는 스스로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인다(이철수 외, 2009).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뛰어나고 적절한 모험심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감과 미래지향성, 혁신성, 활동성 등을 바탕으로 늘 도전하며 장애나 걸림돌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취를 이루어내는 특징을 가진다(김병수, 2014). 그러나 아무리 성취욕구가 높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성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은 학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일류대학의 진학을 위한 강한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느낄 경우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자살로 연결되기도 한다(김병수, 2014; 조선일보, 2007).

한편 자기 신뢰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제시간에 끝내거나 약속된 일을 잘 처리하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Kindlon, 2006). 자기관리를 잘하는 청소년들은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절하며, 스스로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다양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이 뛰어나다. 반면,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문적 성취가 낮을 뿐 아니라 정서, 도덕성 등의 정의적 특성의 발달 및 대인관계에 부적응을 경험하고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희영, 2009; 신현정, 20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파성격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들은 그들의 정서행동적 적응에 보호요인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알파성격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청소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때 그들이 정서행동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유형을 보이게 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3, 4, 6차년도 데이터($N=2351$) 중 알파성격을 선정하기 위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2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1139명(50.5%), 여학생은 1118명(49.5%)이었다.

2. 연구도구

1) 알파성격

본 연구에서는 Kindlon(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파성격 집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 기준으로 학업성적, 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자기 신뢰성 변인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업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평균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리더역할은 패널 문항 중에서 “놀이 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역할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과외활동 참여는 체험활동 연간 참여경험과 교내외 동아리활동 연간 참여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다. 넷째, 성취의욕은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성취 관련 7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의욕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성은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등 자기관리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4문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성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학생을 알파성격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6문항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문항은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봉환 등(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3) 신체화

신체화를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화 문항은 ‘머리가 자주 아프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봉환 등(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 문항은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김선희 등(199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5)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과 김재환 및 원호택(1983)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 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10문항을 사용한다. 우울 문항은 '걱정이 많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김광일 등(198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우울에 대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Kindlon(2006) 등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알파성격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후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즉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의 잠재집단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첫째,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on) 지수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ABIC(Adjusted BIC; Sclove, 1987)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은 가장 작은 값을 산출하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나타낸다. 둘째, 각 모델간 통계적 유의도 차이 검증을 위해서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와 관련하여 p 값을 제공한다. 셋째, 각 하위 잠재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분류의 질(Quality of classification)을 나타내는 Entropy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제적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을 고려하였다. Hill 등은(2000) 표본 수의 1% 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과 함께 앞에서 제시한 다른 모든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이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 기초 통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초 통계 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의 정상성 확보를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보았다. 특히 모든 개별 변수들의 왜도는 2, 첨도는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한편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2257					
	측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행동문제 변수	공격성3	13.22	3.604	.029	-.067
	공격성4	10.96	4.297	-.862	.846
	공격성6	10.45	4.549	-.789	.407
	신체화3	16.62	5.165	.102	-.496
	신체화4	14.92	5.827	-.878	.906
	신체화6	13.95	6.305	-.625	.149
	사회적 위축3	11.30	3.698	-.029	-.534
	사회적 위축4	10.39	4.395	-.650	.205
	사회적 위축6	10.32	4.685	-.712	.051
	우울3	19.81	6.244	.223	-.327
	우울4	17.49	7.230	-.623	.434
	우울6	16.97	7.575	-.650	.298
알파성격선정 변수	학업성적	4.02	2.183	.168	-1.256
	성취의욕	20.36	4.162	-.380	.456
	자기신뢰성	10.16	2.671	-.013	-.124
	리더역할	2.93	.608	-.590	1.444
	교내외활동	12.93	1.833	1.505	2.981

<표 2> 각 변수의 상관관계

N=225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공격성 3	공격성 4	공격성 6	신체화 3	신체화 4	신체화 6	위축 3	위축 4	위축 6	우울 3	우울 4	우울 6	성취 의욕	성취 의욕	자기 신뢰	리더 역할	교내외 활동
2	.325**	1															
3	.206**	.446**	1														
4	.571**	.205**	.176**	1													
5	.221**	.782**	.402**	.319**	1												
6	.144**	.362**	.790**	.285**	.456**	1											
7	.335**	.142**	.135**	.461**	.177**	.150**	1										
8	.118**	.619**	.334**	.123**	.667**	.327**	.380**	1									
9	.054**	.300**	.652**	.100**	.333**	.673**	.325**	.509**	1								
10	.564**	.245**	.191**	.666**	.277**	.229**	.555**	.232**	.176**	1							
11	.217**	.759**	.393**	.259**	.817**	.404**	.215**	.720**	.364**	.364**	1						
12	.151**	.373**	.784**	.220**	.411**	.829**	.198**	.372**	.749**	.298**	.474**	1					
13	-.118**	-.080**	-.023	-.077**	-.088**	-.005	-.101**	-.118**	-.036	-.115**	-.093**	-.038	1				
14	-.164**	-.098**	-.050	-.137**	-.106**	-.040	-.101**	-.115**	-.045	-.183**	-.118**	-.068**	.321**	1			
15	-.093**	-.071**	-.039	-.057**	-.092**	-.019	-.120**	-.151**	-.073**	-.118**	-.107**	-.043	.316**	.518**	1		
16	-.066**	-.063	-.025	-.084**	-.068**	-.014	-.260**	-.173**	-.094**	-.185**	-.106**	-.046	.197**	.208**	.256**	1	
17	-.066**	-.018	.008	-.009	.000	.017	-.085**	-.062**	-.036	-.035	-.012	.007	.209**	.183**	.120**	.056**	1

** p < .01, * p < .05

2. 알파성격 집단 선정

본 연구에서는 Kindlon(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파성격 집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자기 신뢰성을 그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업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평균이 85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리더 경험은 패널 문항 중에서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에 “그런 편이다(3점)”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과외활동 참여 경험은 체험활동 연간 참여경험과 교내외 동아리활동 연간 참여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성취의욕은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성취가치를 나타내는 7문항에 모두 “그런 편이다(3점)”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성은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등 학습에 대한 자기관리를 나타내는 4문항에 대하여 모두 “그런 편이다(3점)”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학생 총 217명(9.2%)을 최종 알파성격 집단으로 선정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3). 특히 전체 알파성격 집단은 남학생이 94명(4.2%), 여학생이 123명(5.4%)으로 구성되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카이스퀘어(χ^2)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3).

<표 3> 알파알파성격 집단의 남녀 카이스퀘어 검증

	알파성격 집단	비알파성격 집단	전체	χ^2	<i>p</i>
남학생	94(4.2%)	1045(46.3%)	1139(50.5%)	4.906**	.027
여학생	123(5.4%)	998(44.1%)	1118(49.5%)		
전체	217(9.6%)	2040(90.4%)	2257(100.0%)		

** $p < .05$

3.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

1)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즉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AIC, BIC, ABIC, Entropy 지수, BLRT의 *p*value값 및 최소집단 사례수를 모형 적합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공격성의 잠재집단에 대한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기준(IC; Information Criterion)지수인 AIC, BIC, ABIC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C지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모형이 복잡할수록 수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하면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IC지수들의 감소가 둔화되는 지점에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림 1과 같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C지수들은 점차로 감소하여 모형적합도가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4개 집단부터 감소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는 2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1에 가까워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Kreuter, Yan & Tourangeau, 2008) 3개 집단에서 감소했다가 다시 4개 집단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한 BLRT의 *p*value값을 살펴보면 2개 집단과 4개 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최소집단의 사례 수는 모든 집단이 1%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ill et al., 2000). 따라서 모든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알파성격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잠재집단은 4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신체화에 대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기준(IC)지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림 2와 같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C지수들은 점차로 감소하여 모형 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는 2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1에 가까워 가장 양호하였으나(Kreuter, Yan & Tourangeau, 2008) 4집단에서 5집단으로 갈수록 다시 양호한 양상이 나타났다. BLRT의 p value값은 2개 집단과 5개 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최소 집단의 사례 수는 모든 집단이 1%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ill et al., 2000). 따라서 모든 모형 적합도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신체화에 대한 잠재집단은 5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사회적 위축에 대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기준(IC)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C지수들은 점차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ntropy지수는 5개 집단이 1에 가까워 가장 양호하였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BLRT의 p value값은 2개 집단과 5개 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최소집단의 사례 수는 모든 집단에서 1%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ill et al., 2000). 따라서 모든 모형 적합도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위축에 대한 잠재집단은 5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기준(IC)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4)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C지수들은 점차로 감소하며 특히 4개 집단에서 감소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ntropy지수는 2개 집단이 1에 가까워 가장 양호하였으며(Kreuter, Yan & Tourangeau, 2008) 3개 집단에서 감소하였다가 4개 집단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BLRT의 p value값은 2개 집단과 4개 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최소집단의 사례 수는 모든 집단에서 1%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ill et al., 2000). 따라서 모든 모형 적합도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은 4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 3차, 4차, 6차 시점의 공격성에 대한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2	3	4	5
AIC	3707.074	3693.671	3662.541	3652.480
BIC	3744.253	3740.990	3719.999	3720.078
ABIC	3709.395	3696.626	3666.128	3656.700
Entropy	.937	.805	.896	.860
BLRT(p -value)	.000	.160	.005	.290
Smallest class(r.F.)	30 (13.825%)	28 (12.903%)	18 (8.295%)	15 (6.912%)

<표 5> 3차, 4차, 6차 시점의 신체화에 대한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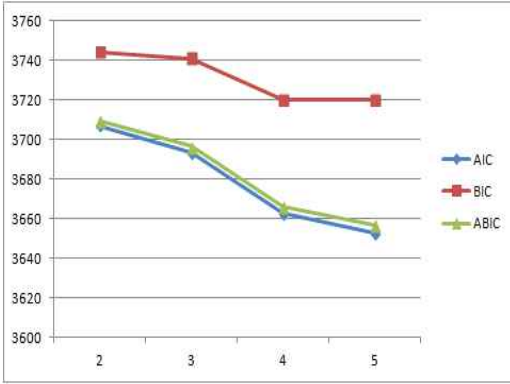
	2	3	4	5
AIC	4119.566	4104.980	4057.940	4038.993
BIC	4156.745	4152.299	4115.398	4106.591
ABIC	4121.887	4107.934	4061.527	4043.214
Entropy	.948	.786	.918	.932
BLRT(p -value)	.000	.196	.093	.011
Smallest class(r.F.)	29 (13.364%)	28 (12.903%)	26 (11.982%)	10 (4.608%)

<표 6> 3차, 4차, 6차 시점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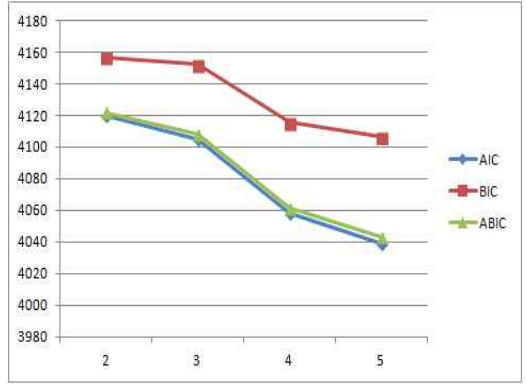
	2	3	4	5
AIC	3698.218	3689.082	3652.180	3626.988
BIC	3735.397	3736.401	3709.638	3694.586
ABIC	3700.539	3692.036	3655.767	3631.208
Entropy	.889	.745	.905	.943
BLRT(p -value)	.001	.362	.109	.024
Smallest class(r.F.)	30 (13.825%)	28 (12.903%)	28 (12.903%)	6 (2.765%)

<표 7> 3차, 4차, 6차 시점의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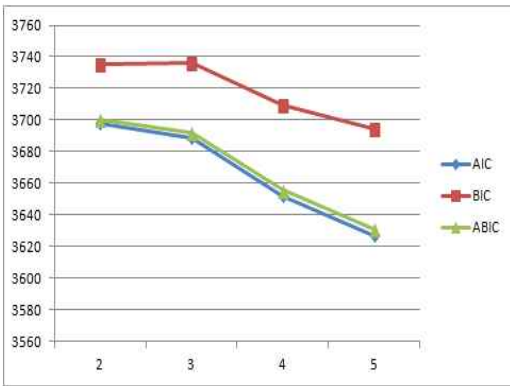
	2	3	4	5
AIC	4322.134	4305.985	4278.679	4274.328
BIC	4359.313	4353.304	4336.138	4341.926
ABIC	4324.455	4308.940	4282.267	4278.548
Entropy	.946	.821	.883	.855
BLRT(p -value)	.000	.221	.026	.545
Smallest class(r.F.)	30 (3.825%)	28 (12.903%)	22 (10.138%)	20 (9.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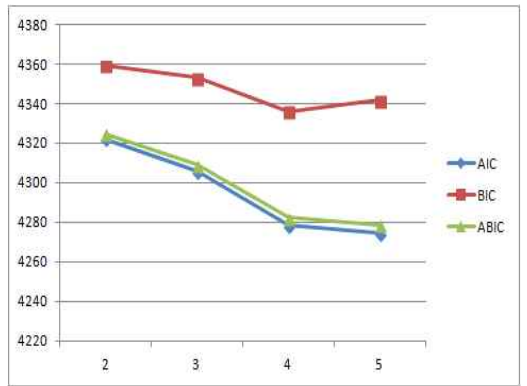
[그림 1] 공격성 IC지수 변화



[그림 2] 신체화 IC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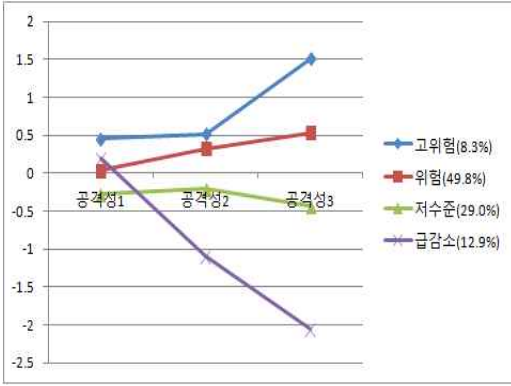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위축 IC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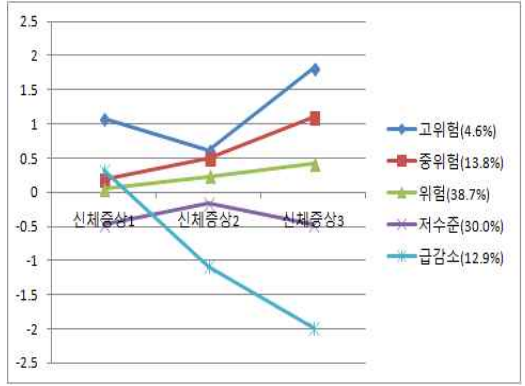
[그림 4] 우울 IC지수 변화

2) 잠재집단의 변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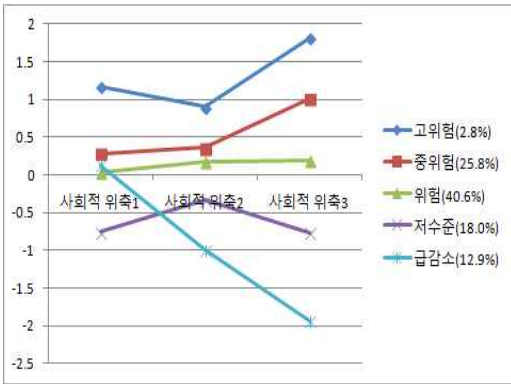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중 공격성은 4개의 잠재집단 유형으로, 신체화는 5개, 사회적 위축은 5개, 우울은 4개의 잠재집단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5, 6, 7, 8). 특히 본 연구에서는 평균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유형을 고위험, 중위험(신체화, 사회적 위축의 경우에만 해당), 위험 유형으로 명명하였고, 평균 이하에서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유형을 저수준 유형으로, 초기치는 평균 수준이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유형을 급감소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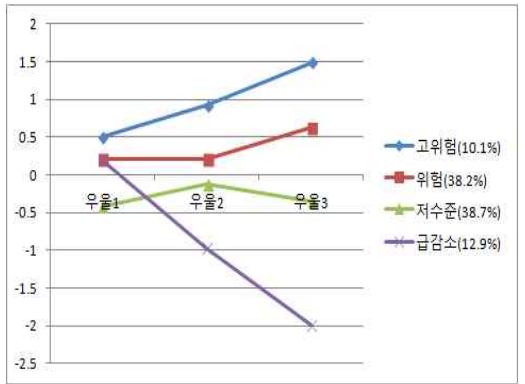
[그림 5] 공격성 변화 유형



[그림 6] 신체화 변화 유형



[그림 7] 사회적 위축 변화 유형



[그림 8] 우울 변화 유형

4. 성차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유형의 차이

다음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즉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의 각 유형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8),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의 잠재집단 유형이 성과 관련없이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 알파성격 집단의 성별에 따른 카이스퀘어 검증

집 단	정서행동문제 유형				χ^2	p	
	공격성						
	1 고위험	2 위험	3 저수준	4 급감소			
남학생	7(7.4%)	49(52.1%)	30(31.9%)	8(8.5%)	3.284	.350	
여학생	11(8.9%)	59(48.0%)	33(26.8%)	20(16.3%)			
	신체화						
	1 고위험	2 중위험	3 위험	4 저수준	5 급감소		
남학생	6(6.4%)	8(8.5%)	42(44.7%)	30(31.9%)	8(8.5%)	8.741	.068
여학생	4(3.3%)	22(17.9%)	42(34.1%)	35(28.5%)	20(16.3%)		
	사회적 위축						
	1 고위험	2 중위험	3 위험	4 저수준	5 급감소		
남학생	2(2.1%)	22(23.4%)	42(44.7%)	20(21.3%)	8(8.5%)	4.799	.309
여학생	4(3.3%)	34(27.6%)	46(37.4%)	19(15.4%)	20(16.3%)		
	우울						
	1 고위험	2 위험	3 저수준	4 급감소			
남학생	6(6.4%)	37(39.4%)	43(45.7%)	8(8.5%)	6.961	.073	
여학생	16(13.0%)	46(37.4%)	41(33.3%)	20(16.3%)			

** $p < .05$

V. 논의

최근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엘리트 여학생들의 두드러진 활약은 알파성격과 알파결에 대한 연구를 증가시켰다. 연구자들은(e.g., Ludeman & Erlandson, 2006; Kindlon, 2006) 알파성격 청소년들이 높은 자부심과 자신감, 리더십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등이 높은 건강한 집단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알파성격 청소년의 특성으로 개인 내적 혹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간과하였고, 주로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들 알파성격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중 알파성격 청소년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들 집단의 정서행동적 문제에서의 변화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남녀 집단별로 변화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성적, 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자기 신뢰성을 기준으로 알파성격 청소년 집단을 선정한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총 217명(9.2%)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남학생이 94명(4.2%), 여학생이 123명(5.4%)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전체 여학생(1118명) 중 11.0%(123명)가 알파결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파결의 원저자인 Kindlon(2006)은 미국 여학생 중 약 20%가 알파결로 분류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양명희와 이경아(2009)는 우리나라 여학생 집단의 7.8%가 알파결로, 최윤진과 임현정(2010)은 15%가 알파결 집단에 속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알파성격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알파성격 특성을 지닌 국내 여학생들이 외국의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 수행하고 있다는 것(Ward, Popson, & DiPaolo, 2010)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즉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AIC, BIC, ABIC, Entropy 지수, BLRT의 p -value값 및 최소집단의 사례수를 모형 적합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공격성은 4개의 잠재집단 유형으로, 신체화는 5개, 사회적 위축은 5개, 우울은 4개의 잠재집단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각각 고위험 유형, 중위험 유형(신체화, 사회적 위축의 경우에만 해당), 위험 유형, 저수준 유형, 급감소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서행동적 문제가 평균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유형이 공격성은 58.1%, 신체화는 57.1%, 사회적 위축은 69.2%, 우울은 48.3%로, 전체 알파성격 청소년의 약 50% 이상이 정서행동문제에서 위험군임을 나타내 알파성격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알파성격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양명희, 이경아, 2009; 최윤진, 임현정, 2010; Kindlon, 2006; Ward, DiPaolo, & Popson, 2009)과 일정부분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미래 진로 등의 준비로 과거보다 더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며(Bagana, 2014) 이러한 경험들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청소년기 부적응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Lipps et al., 2010).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이 학업과 운동, 리더십 등 다방면에 뛰어나 주목받는 알파성격 청소년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부적응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의 각 유형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원래 알파성격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지배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Hawley, Little, & Card, 2008; Little & Card, 2008). 특히 Snapp(2010)은 알파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높은 학업 성취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문제 대처 기술에 있어서 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알파성격 여학생의 경우 낮은 자기 유능감과 높은 스트레스 및 섭식장애 등을 보이며, 알파성격 남학생은 낮은 수준의 친밀감, 상호

작용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는 등 알파성격 청소년 모두 정서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Snapp, 2010).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과거와 달리 최근 여성 상층 추세와 엘리트 여성들의 두각이 두드러짐에 따라 알파성격 여성들이 더 주의를 끌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할지라도, 알파 성격적 특성이 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정서행동적 적응에 모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관련 보고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알파걸들이 학교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는 리더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학업위주의 생활패턴, 조화와 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고 따뜻한 감성보다는 지적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를 가진 여성 리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김애순, 2009). 또한 이들 알파성격 여성들은 남성 중심 사회의 고정관념을 깰 능력 있는 여성으로 각광받는 동시에 오히려 '잘난 여자, 드센 여자'라는 이중적 잣대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며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들이 이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매일경제, 2007; 매일경제, 2008).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문화 및 교육에 있어서 이들 알파걸뿐만 아니라 알파성격을 지닌 청소년 전체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알파성격을 나타내는 소위 리더형 청소년들에 대해 그들의 내적인 심리정서적 특성보다 주로 외적으로 표출되는 단편적인 특성들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그들은 학업성취와 리더십, 성취동기, 다방면의 활동 실적 등 외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정서적 변화와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 혹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보다 민감하게 파악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알파성격 청소년들은 초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주위의 인정과 긍정적 피드백으로 임파워먼트 되었지만(유보람, 2016)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에서 실패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좌절과 실패를 인내하는 연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과업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는 없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알파성격 특성을 보유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실패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성과 자발성의 발휘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Mcrobbie, 2009) 이후 더 큰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알파성격 청소년들과 같이 자기를 통제하고 억압하며 지나치게 주지적이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일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우울과 위축 등 심리적 부적응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Jourard, 1964; Wolpe, 1958). 따라서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는 알파성격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과도한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활동의 결과에만 치중하고 과정을 즐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는지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이 보다 다양한 관계와 활동 경험을 통하여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서구에서 발견되어온 알파성격이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격으로 여겨진 알파성격을 지닌 남녀 청소년들의 어떠한 정서행동적 문제 유형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녀 알파성격 청소년 집단의 정서행동적 특성 유형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전체 청소년 중 중학생으로 제한되었고, 패널 데이터의 문항 중에서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도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파성격을 측정하는 보다 타당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알파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성(2004).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김병수(2014). 청소년 성취동기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소영(2006). 시간관리 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시간관리, 자기통제력,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혜자(2006).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사회문제 해결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매일경제(2007). 알파걸은 왜 알파우먼이 되지 못할까?. <http://www.mk.co.kr/>에서 2007년 12월 01일 인출.
- 매일경제(2008). 알파걸의 굴레. <http://epaper.mk.co.kr/Viewer.aspx?exec=viewsearch&GCC=AB00699&CNo=48666931>에서 2008년 8월 28일 인출.
- 박춘성, 원경림(2009). 학업 우수아와 일반 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를 통한 학업우수아 지도방안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3), 221-245.
- 반기완(2008).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문제행동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성영실(2009).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신유림(200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28(5), 193-207.
- 신현심(2005).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양명희, 이경아(2009). 알파걸 탐색과 학습관련 심리적 특성 분석. **교육과학연구**, 40(3), 31-53.
- 오혜진(2011).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알파걸 집단과 일반 여학생 집단 간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보람(2016). 성 불평등 현실과 '알파걸'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봉주(2009). 수학 학업성취도의 변산도에서 성차 추이 분석-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19(2), 273-288.
- 이혜경(2002). 학업성취도에 대한 읽기동기와 독해력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정현진(2014). 자존감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문, 숙명여자대학교.

조선일보(2007). 공부 잘했던 어느 외고 여고생의 투신 자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5/2007062500052.html에서 2007년 6월 25일 인출.

최윤진, 임현정(2010). '알과결'의 실제 및 진로발달 특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203-230.

통계청·여성가족(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PISA 2012 결과로 본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성취 특성.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과학-.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수학-.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28.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Bagana, E. (2014). Adolescents'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proactive coping and self-perceived success in academic domai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7(22), 282-286.

Brown, T. (2007). *Predicting young adult outcomes from adolescent activities and family structure: A social capit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Davies, N. B. (1985).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dunnocks, *Prunella modularis*, in a variable mating system. *Animal Behavior*, 33, 628-648.

Erikson, E. H. (1968). *Identity*. Norton.

Hawley, P. H., Little, T. D., & Card, N. A. (2008). The myth of the alpha male: A new look at dominance-related beliefs and behaviors among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1), 76-88.

Hollin, C. R. (1990). Social skills training with delinquents: A look at the evidence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5), 483-494.

Jourard, S. M. (1964). *The transparent self: Self-disclosure and well-being* (No. 17). Van Nostrand.

Kindlon, D. (2006). *Alpha girls: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New York, NY: Rodale.

Lipps, G. E., Lowe, G. E., Halliday, S., Morris-Patterson, A., Clarke, N., & Wilson, R. N. (2010). The Association of academic tracking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 adolescents in three Caribbean countrie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4(16), 1-10.
- Lopez, M. H & Gonzalez-Barrera, A. (2014). *Women's college enrollment gains leave men behind*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March 6, 2014, from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03/06/womens-college-enrollment-gains-leave-men-behind/>
- Ludeman, K., & Erlandson, E. (2006). *Alpha male syndrom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 (1953). *The Achievement motive*. NY: Appleton-Century-Crofts.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cRobbie, A. (2009). *The aftermath of feminism: Gender, culture and social change*. Sage.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In M.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407-434).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napp, S. D. (2010). *How super is the super girl?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 achiev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Twenge, J. M. (2001). Changes in women's assertiveness in response to status and rol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31-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33-14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1). Age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321-344.
- Van Linden, J. A., & Fertman, C. I. (1998).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ssey-Bass.
- Ward, R. M., DiPaolo, D. G., & Popson, H. C. (2009). College student leaders: Meet the alpha female. *Journal of Leadership Education*, 7(3), 100-116.
- Wester, S. R., Christianson, H. F., Vogel, D. L., & Wei, M.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8, 215-224.

Wolpe, J. (195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Sanford.

* 논문접수 2017년 2월 3일 / 1차 심사 2017년 3월 10일 / 게재승인 2017년 3월 23일

* 하문선: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홍익대학교에서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moonsunha@cdu.ac.kr

* 하요상: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ymemme@gjue.ac.kr

Abstract

Latent Trajectory Classes Patterns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s of Alpha Youth*

Ha, Moon-sun**

Ha, Yo-sa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hanging patterns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s of alpha youth and the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change between boys and girls after identifying how many alpha youths are among Korean youth. First, the alpha personality group was selected based on academic achievement, leadership,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reliance. As a result, a total of 217(9.2%)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total, among which 94(4.2%) were boys and 123(5.4%) were girls, which means that there are more alpha girls than alpha boy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growth mixture model(GMM) to examine the changes of various subgroups of aggression, somatizatio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alpha youth, aggression was classified into 4 latent group types, somatization as five latent group types, social withdrawal as five latent group types, and depression as four latent groups, which are classified into a high risk type, a middle level type(only in the case of somatization and social withdrawal), a risk type, and a rapid decrease type. It is especially noteworthy that more than 50% of the total alpha youth showed that they are an at-risk group, which revealed the seriousness of the level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s of alpha youth. Finally,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each type of aggression, as well as in somatizatio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lpha youth.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all types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alpha personality traits can be a risk factor for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adaptation regardless of gender differe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eeks more appropriate education and counseling methods for boys' and girls' alpha personality groups through understanding their respective emotion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more comprehensively.

Key words: Alpha, personality, emotional behavior, aggression, somatizat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 This study is the amend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2016 6th Korea Child Youth panel Conference'.

** assistant Professor, Chod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